연세대학교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ESC 23-2 SUMMER WEEK5

### Eigenvalue Problem for Sparse Matrices

[ESC 방학세션 1조] 김준엽 송시은 오동윤 최영준





### Contents

- 1. Arnoldi Iteration
- 2. Krylov Subspaces
- 3. How Arnoldi Locates Eigenvalues
- 4. Lanzcos Process
- 5. Ghost Eigenvalues





### 1. Arnoldi Iteration

### Overview of Iterative Methods

#### Sparse Matrix

Sparse matrix : 행렬의 구성요소인 element들이 대부분 0인 행렬

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(N뿐만 아니라 M또한 커지면) Sparsity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

예를 들어 유튜브 시청기록에 대한 행렬을 표현하고자 하면 N(유저 수) x M(영상 수)로 표현할 수 있는데, M의 사이즈가 아주 크기 때문에 sparsity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

이처럼 실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sparse matrix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음 -> sparse matrix에 특화된 processing하는 과정 필요





### Overview of Iterative Method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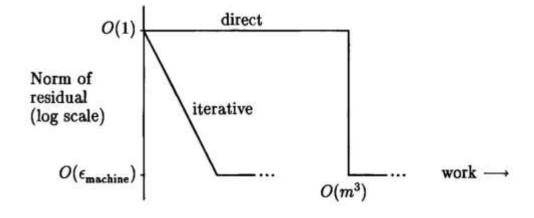
#### Why Iterate?

계산에 필요한 cost가 줄어들기 때문에! (m: 행렬의 차원)

- Non-iterative 알고리즘:  $O(m^3)$
- iterative 알고리즘:  $O(m^2)$

특히 sparse matrix의 경우, 차원은 크지만 non-zero 성분이 적으므로 적절한 iterative method를 사용해 cost를 크게 줄일 수 있다.

예를 들어, 차원은  $m=10^5$ 이지만 0이 아닌 성분은 v=10개인 행렬 A를 생각해보자 행렬 A와 벡터 x의 곱을 구하기 위해 iterative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O(vm)번의 계산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다.







#### The Arnoldi/Gram-Schmidt Analogy

sparse matrix의 eigenvalue를 구하기 위해 Arnoldi Iteration이 사용된다.

먼저, Householder transformation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upper Hessenberg form으로 나타낼 수 있다.

$$Q^T A Q = H$$
, where  $A \in \mathbb{R}^{n \times n}$ 

Gram-Schmidt 방식으로 QR 분해(A=QR)을 계산하는 것과,

Hessenberg reduction (A=QHQ^\*)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유사함. (Gram-schmidt의 장점활용 가능 – can be stopped)

orthogonal structuring

structured orthogonaliz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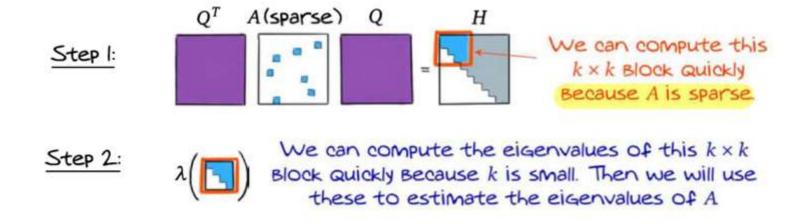
A = QR	$A = QHQ^{*}$
Householder	Householder
Gram-Schmidt	Arnoldi





#### Mechanics of the Arnoldi Iteration

dense matrix의 경우, H의 eigenvalue는 A의 eigenvalue와 같지만, 우리는 sparse matrix의 경우를 고려해야 함! (estimate) H의  $k \times k$ 만큼의 블럭을 떼어내 먼저 eigenvalue를 계산하고, 점차 k를 늘려가며 A의 eigenvalue를 계산할 수 있다.







#### Mechanics of the Arnoldi Iteration

 $Q^TAQ = H$  식에서 Q는 orthogonal하므로, AQ = QH 로 식을 변형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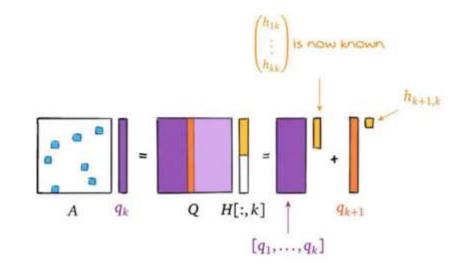
다음, Q의 k번째 열과 H의 k-1번째 열까지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, 다음과 같이 고유값을 계산할 수 있다.

$$for \ i \le k, \qquad q_i^T A q_k = h_{ik}$$
  
  $\to A q_k = h_{1k} q_1 + \dots + h_{kk} q_k + h_{k+1,k} q_{k+1}$ 

위 식을 변형시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.

$$r_k = Aq_k - h_{1k}q_1 - \dots - h_{kk}q_k = h_{k+1,k}q_{k+1}$$
  
 $\Rightarrow h_{k+1,k} = ||r_k||, \ q_{k+1} = r_k/h_{k+1,k}$ 

 $h_{i,k+1}, q_{k+2}$ 도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. (놈의 부호는 반대로 해도 상관없다)







#### Mechanics of the Arnoldi Iter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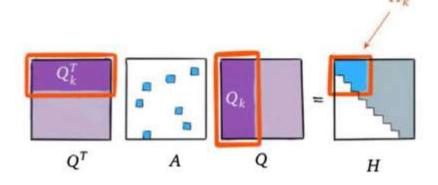
이처럼 랜덤 벡터  $q_1$ 에서 시작해 반복함으로써 H와 Q의 k개의 열을 구하는 방법을 Arnoldi process라고 한다.

Arnoldi process를 통해  $H_k$ 를 구하면,  $H_k$ 의 eigenvalue를 구하여 A의 eigenvalue로 근사할 수 있다.  $H_k$ 는 크기가 작으므로 eigenvalue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한편 A의 eigenvalue는 n개이고,  $H_k$ 의 eigenvalue는 k개이므로( $n \le k$ ),

모든 eigenvalue를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.

단, k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많은 값을 추정할 수 있다.







#### Mechanics of the Arnoldi Iteration

Arnoldi iteration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요약할 수 있다.

- 1. last vector q\_k를 이용해 sequence 생성
- 2. A를 행렬곱
- 3.  $\{q_1, q_2, \dots, q_k\}$  에 대하여 orthogonal하게 만들기

#### Arnoldi recurrence relation

Suppose we already have  $q_1, \ldots, q_k$  and  $h_{:,j}$  for j < k. Then we can find  $q_{k+1}$  and  $h_{:,k}$  as follows:

$$h_{ik} = q_i^t A q_k \quad \text{for } i \le k,$$

$$r_k = A q_k - \sum_{i=1}^k h_{ik} q_i,$$

$$h_{k+1,k} = ||r_k||_2,$$

$$q_{k+1} = \frac{r_k}{h_{k+1,k}}.$$





#### Krylov Sequence

행렬 A와 벡터 b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.

• Krylov sequence: *b*, *Ab*, *A*<sup>2</sup>*b*, *A*<sup>3</sup>*b*, ..., 의 벡터들의 집합

$$K_k = [b, Ab, \dots, A^{k-1}b]$$

• Krylov subspace: 위의 벡터들로 span한 공간

$$\varkappa_k = span\{b, Ab, \dots, A^{k-1}b\}$$

#### Krylov subspace

The space spanned by all  $A^i q_1$ ,  $0 \le i < k$ , is called a **Krylov subspace**:

$$\mathcal{K}(A, q_1, k) = \text{span}\{q_1, Aq_1, A^2q_1, \dots, A^{k-1}q_1\}.$$

The matrix  $K_k = [q_1, Aq_1, \dots, A^{k-1}q_1]$  is called a **Krylov matrix**.





#### Krylov Sequence

이러한 sequence는 b, Ab,A(Ab),A(A(Ab))),...와 같은 형태의 black box로 계산할 수 있다.

이때, Arnoldi Itertation의 벡터  $\{q_k\}$ 는 위와 같은 Krylov 부분공간의 기저를 형성한다.

또한  $\{q_k\}$ 는 정규직교벡터이므로, 이들은 정규직교기저가 된다.

즉 Arnoldi process는 연속적인 Krylov 부분공간의 정규직교기저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.

ı	Ax = b	$Ax = \lambda x$
$A = A^{\bullet}$	CG	Lanczos
$A \neq A^{\bullet}$	GMRES CGN BCG et al.	Arnoldi

$$\varkappa_k = span\{b, Ab, ..., A^{k-1}b\} = span\{q_1, q_2, ..., q_k\}$$

- Krylov 의 사용 목적? M dimensional한 문제를 낮은 차원(krylov space)으로 풀려고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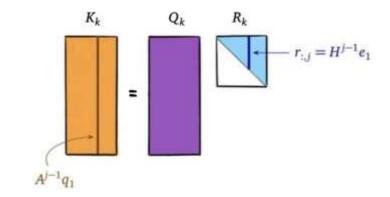
#### QR Factorization of a Krylov Matrix

 $K_k$ 은 아래와 같은 reduced QR Factorization을 갖는다.

$$K_k = Q_k R_k$$

먼저  $Q^T K_k$ 에서 j번째 열은 다음과 같다.

$$Q^T A^{j-1} q_1 = Q^T Q H^{j-1} Q^T q_1 = H^{j-1} e_1$$



그렇다면  $R_k$ 의 원소  $r_{ij}$ 를 위 식에서 구한  $H^{j-1}(i,1)$ 로 고를 수 있다.  $(H^0 = I)$ 

H는 Hessenberg 행렬이기 때문에  $R_k$ 는 upper triangular 행렬이다. 따라서  $K_k$ 를 QR factorization 할 수 있다.

Arnoldi process에서는 K  $_k$ 의 열들이 A의 dominant eigenvalue에 대한 근사치이므로 위의 행렬들은 일반적으로 ill-conditioned한 행렬들일 것이고, 따라서 이는 직관적이지만 unstable한 알고리즘이다.





#### Projection onto Krylov Subspaces

이때 Hessenberg matrix  $H_k$ 은 다음과 같은 projection이다.

$$H_k = Q_k^T A Q_k$$

이러한 projection은 Rayleigh-Ritz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다.

또한  $H_k$ 이 A의 projection이므로 A의 eigenvalue와  $H_k$ 의 eigenvalue는 서로 연관이 있다.

이때 아래의 k개의 숫자들이 Arnoldi eigenvalue estimates (at step k), 또는 Ritz values (with respect to  $K_k$ )라고 불린다.

$$\{\theta_j\} = \{eigenvalues \ of \ H_k\}$$





#### Arnoldi and Polynomial Approximation

Krylov subspace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A와 powers와의 connection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. matrix의 polynomial은 다음과 같다.

$$f(z) = f_0 + f_1 z + \dots + f_k z^k$$

$$\to f(A) = f_0 I + f_1 A + \dots + f_k A^k$$

만약 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면  $f(A) = Xf(\Lambda)X^{-1}$ 이 성립한다.

위처럼 polynomial 형태로 만든 후에 행렬 A에 대한 특성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.

$$\to P_A(z) = \det(zI - A)$$

그렇다면  $A = X\Lambda X^{-1}$ 의 eigenvalue에 대하여  $P_A(A) = XP_A(\Lambda)X^{-1} = 0$ 이 성립하게 된다. 즉, 특성방정식이 0이 되므로 이때의 해가 행렬의 eigenvalue가 된다.





#### Arnoldi and Polynomial Approximation

이처럼  $P_{H_k}(H_k) = 0$ 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서 A의 eigenvalue를 추정할 수 있다.

이를 위해서는  $||P_{H_k}(A)||_2$ 가 최소가 되는 값을 찾아야 한다.

 $\rightarrow ||P_{H_k}(A)||_2$ 가 아니라  $||P_{H_k}(A)q_1||_2$ 이 최소가 되는 것을 보여야 한다!

$$D = \prod_{i=1}^{k} (\Lambda - \mu_i I_n) = \begin{bmatrix} \prod_{i=1}^{k} (\lambda_1 - \mu_i) & & & \\ & \prod_{i=1}^{k} (\lambda_2 - \mu_i) & & & \\ & & \ddots & & \\ & & & \prod_{i=1}^{k} (\lambda_n - \mu_i) \end{bmatrix}$$

 $H_k$ 의 eigenvalue를  $\mu_1, ..., \mu_k$ 라고 할 때,

$$P_{H_k}(z) = \prod_{i=1}^k (z - \mu_i)$$

A 대신  $X\Lambda X^{-1}$ 를 대입하면

$$P_{H_k}(A)q_1 = XP_{H_k}(\Lambda)X^{-1}q_1 = X\prod_{i=1}^k (\Lambda - \mu_i I_n)X^{-1}q_1 = XDX^{-1}q_1$$





#### Proof

k차 함수 f에 대하여  $||f(A)q_1||_2$ 가 minimal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.

$$f(x) = x^{k} + f_{k-1}x^{k-1} + \dots + f_{0}$$

$$f(A)q_{1} = (A^{k} + f_{k-1}A^{k-1} + \dots + f_{0}I)q_{1}$$

$$= A^{k}q_{1} + K_{k} \cdot \begin{pmatrix} f_{0} \\ f_{1} \\ \vdots \\ f_{k-1} \end{pmatrix}$$

$$= A^{k}q_{1} + Q_{k}y$$

이때  $K_k = Q_k R_k$ 로 분해할 수 있으므로  $y \in \mathbb{R}^k$ 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. 따라서  $||f(A)q_1||_2$ 를 minimal하게 만들어주는 f를 찾는 것은  $||A^kq_1+Q_ky||_2$ 를 minimal하게 만들어주는 y를 찾는 것과 동일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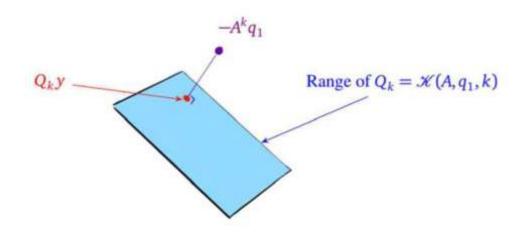




#### Proof

이를 least-squares problem으로 상정하면 솔루션은  $Q_k^T f(A)q_1 = 0$ 을 만족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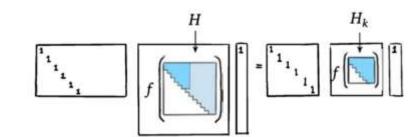
즉 에러 벡터가 range of  $Q_k$ 에 orthogonal하다.



이때  $f(A) = Qf(H)Q^T$ 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식을 풀어 쓸 수 있다.

$$0 = Q_k^T f(A) q_1 = Q_k^T Q f(H) Q^T q_1 = [I_k, 0] f(H) e_1.$$

$$[I_k, 0] f(H) e_1 = I_k f(H_k) e_1.$$







#### **Invariance Properties**

이렇게 구한  $H_k$ 의 eigenvalue(=Ritz value)는 아래와 같은 properties를 만족한다.

(1) Translation-invariance

만약 A가  $A + \sigma I$ 로 바뀌고 b는 그대로라면,  $\{\theta_j\}$ 는 각 스텝 k에서  $\{\theta_j + \sigma\}$ 로 바뀐다.

(2) Scale-invariance

만약 A가  $\sigma A$ 로 바뀌고 b는 그대로라면,  $\{\theta_i\}$ 는 각 스텝 k에서  $\{\sigma\theta_i\}$ 로 바뀐다.

(3) Invariance under unitary similarity transformation

만약 A가  $UAU^T$ 로 바뀌고 b는 Ub로 바뀐다면,  $\{\theta_i\}$ 는 변하지 않는다.

(*U*: unitary 행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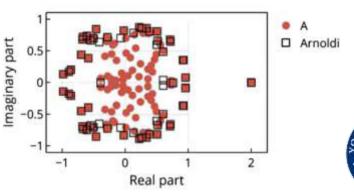


#### Computing Eigenvalues by the Arnold Iteration

Arnoldi Iteration은 수치선형대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iterative 알고리즘의 기초이자, non hermitian matrix의 eigenvalues를 찾는 기법이다.

이전 장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, 각 스텝 n에서 Hessenberg 행렬  $H_n$ 의 eigenvalue를 QR 알고리즘 등을 통해 계산한다. 이러한 값은 기하학적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, 이때 수렴한 값을 A의 eigenvalue로 생각할 수 있다.

Arnold Iteration을 사용하면 A의 모든 eigenvalue를 찾기는 힘들 수 있지만 outlying eigenvalue를 먼저 찾을 수 있다.







#### Arnoldi Lemniscates

• Lemniscates: 아래와 같은 curve (p: polynomial, C: 실수)

$${z \in \mathbb{C}: |P(z)| = C}$$

이때 p를 Arnoldi polynomial  $p_k$ 로 두고 C를 아래와 같은 값으로 두자.

$$C = \frac{||p_k(A)b||}{||b||}$$

위 식을 대입해 만들어지는 curve를 Arnoldi Lemniscates라고 한다.

Iteration number n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lemniscate가 A의 outlying eigenvalue를 둘러싸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 점(eigenvalue)으로 수렴한다.





#### Arnoldi Lemniscates

예를 들어 m=100인 정방행렬 A의 원소 자리에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 $m^{-1/2}$ 인 실수 정규분포를 따르는 무작위 수를 넣는다고 가정해보자.

이는 A의 eigenvalue가 unit disk  $|z| \le 1$ 안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.

만약 원소  $a_{11}$ 을 1.5로 바꾸어 outlying eigenvalue를 만들고 Arnoldi Iteration을 적용하면, 아래 그림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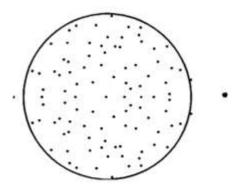


Figure 34.2. Eigenvalues of a  $100 \times 100$  matrix A, random except in the 1,1 position. The circle is the unit circle in  $\mathbb{C}$ . The eigenvalues are approximately uniformly distributed in the unit disk except for the outlier  $\lambda \approx 1.4852$ 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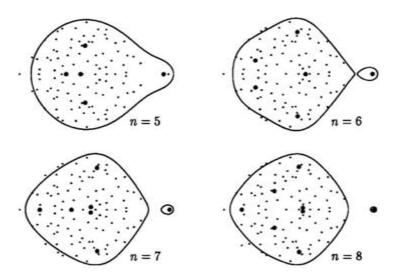
#### Arnoldi Leminiscates

아래 그림 속 작은 점은 A의 eigenvalue, 굵은 점은  $H_k$ 의 eigenvalue이다.

n이 1일 때는 leminiscate가 원에 가깝고 outlying eigenvalue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그러나 n이 커짐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 $\lambda$  의 방향으로 부풀었다가 떨어져나가고 새로운 leminiscate가 생성된다.

이후 이 성분은 수축해서 특정 eigenvalue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.







#### Arnoldi Lemniscat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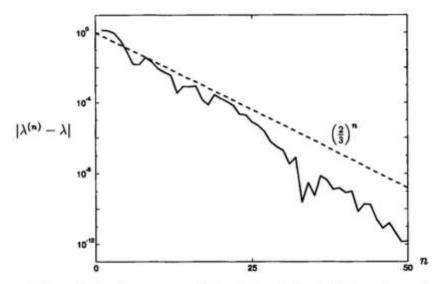


Figure 34.4. Convergence of the rightmost Arnoldi eigenvalue estimate.

다음 그림은  $|\lambda^{(k)} - \lambda|$ 이 수렴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.  $(\lambda^{(k)}: k$ 번째 스텝에서  $\lambda$ 를 Arnoldi eigenvalue estimates로 구한 값)

약 50번의 반복 후에 소수점 12자리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.





### 4. Lanczos Process

#### Arnoldi process

$$Q^TAQ = H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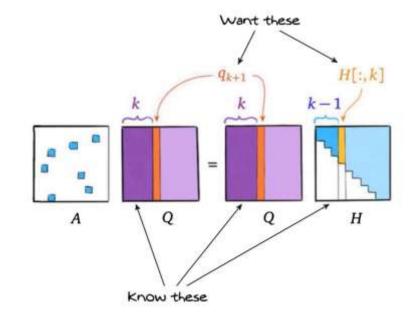
H 행렬의 k x k block을 통해서 A 행렬의 eigenvalue를 추정

- 1. Q의 1~k번째 열과 H의 1~k-1번째 열을 알고있다고 가정
- 2.  $i \leq k$ 일 때  $h_{ik}$ 를 다음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.

$$q_i^T A q_k = h_{ik}$$

3.  $i \leq k$ 일 때  $h_{ik}$ 를 구했으므로  $h_{k+1,k},\ q_{k+1}$ 를 다음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.

$$egin{aligned} Aq_k &= h_{1k}q_1 + ... + h_{kk}q_k + h_{k+1,k}q_{k+1} \ & r_k &= Aq_k - h_{1k}q_1 - ... - h_{kk}q_k = h_{k+1,k}q_{k+1} \ & h_{k+1,k} &= \|r_k\|, \ q_{k+1} &= r_k/h_{k+1,k} \end{aligned}$$







#### Lanczos process

Lanczos process는 Arnoldi process의 특별한 경우이다.

Arnoldi process에서 A행렬이 symmetric이라면  $Q^TAQ=T$ 에서 T는 헤센베르크 행렬이자 대칭 행렬이어야 한다. 즉 T는 tri-diagonal matrix(삼중 대각행렬)이다.

$$T = \begin{pmatrix} \alpha_1 & \beta_1 & \cdots & & 0 \\ \beta_1 & \alpha_2 & \cdots & & & \\ \vdots & & \ddots & & \vdots \\ & & & \ddots & & \vdots \\ & & & \ddots & \beta_{n-1} \\ 0 & & \cdots & \beta_{n-1} & \alpha_n \end{pmatrix}.$$





#### Lanczos process

T행렬의 특징으로 인해 Lanczos process는 Arnoldi process보다  $r_k$ 를 구하는 계산이 간략해진다.

 $q_1, ..., q_k, \alpha_1, ..., \alpha_{k-1}, and \beta_1, ..., \beta_{k-1}$ 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,  $q_{k+1}, \alpha_k, \beta_k$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.

1. 
$$\alpha_k = q_k^T A q_k$$

2. 
$$r_k = Aq_k - \beta_{k-1}q_{k-1} - \alpha_k q_k = \beta_k q_{k+1}$$

3. 
$$\beta_k = \|r_k\|_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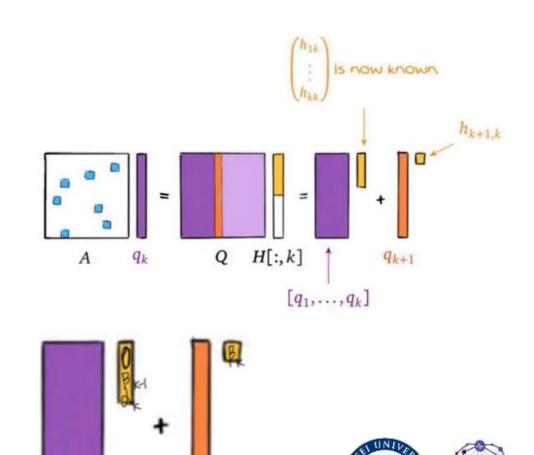
4. 
$$q_{k+1} = r_k/\beta_k$$

처음에 랜덤으로  $q_1$ 을 설정하고 위 과정을 반복하면 Q행렬과 T행렬의 열들을 구할 수 있다.

이 과정을 통해  $T_k$ 의 k개의 고유값으로 A의 고유값을 추정할 수 있다.

모든 step에서 1번의 내적, 1번의 norm 계산, 5번의 벡터 연산이 필요하므로 연산량은 O(n)이다.

(Arnoldi는 iteration k에서 O(kn)의 연산량 필요)



#### Convergence estimates

먼저 대칭행렬 A의 largest eigenvalue  $\lambda_1$ 은 Couran-Fischer minmax theorem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.

$$\lambda_1 = \max_{x \neq 0} \frac{x^T A x}{\|x\|_2^2}.$$

 $\lambda_1$ 을 추정하기 위하여  $T_k$ 행렬의 top eigenvalue  $\mu_1$ 을 사용할 것이다. 이때  $T_k=Q_k^TAQ_k$ 라는 사실과  $Q_k$ 의 columns이 Krylov subspace  $\mathcal{K}(A,q_1,k)$ 를 span 한다는 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.

$$\mu_1 = \max_{x \neq 0} \frac{x^T Q_k^T A Q_k x}{\|x\|^2} = \max_{y \in \mathcal{K}(A, q_1, k) \setminus \{0\}} \frac{y^T A y}{\|y\|^2}$$

 $\mathcal{K}(A,q_1,k)$ 가  $\mathbb{R}^n$ 의 subset이므로  $\mu_1 \leq \lambda_1$ 이다.

#### Courant-Fischer minimax theorem

If  $A \in \mathbb{R}^{n \times n}$  is symmetric, then

$$\lambda_k(A) = \max_{\dim(S) = k} \min_{0 \neq y \in S} \frac{y^T A y}{y^T y}$$

with  $\lambda_1 \geq \lambda_2 \geq \cdots \geq \lambda_n$ . The set S that attains the maximum is the span of the eigenvectors for the k largest eigenvalues,  $\{q_1, \ldots, q_k\}$ .





#### Convergence estimates

 $y \in \mathcal{K}(A,q_1,k)$ 인 벡터  $y \vdash f(x) = f_0 + f_1x + f_2x^2 + \ldots + f_{k-1}x^{k-1}$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.

$$y = f(A)q_1$$
  $y = f_0q_1 + f_1Aq_1 + f_2A^2q_1 + ... + f_{k-1}A^{k-1}q_1$ 

이를 이용하여  $\mu_1$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.

$$\mu_1 = \max_{f \text{ of degree } k-1} \frac{q_1^T f(A)^T A f(A) q_1}{q_1^T f(A)^2 q_1}.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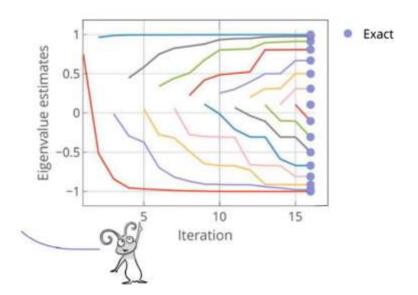


#### Convergence estimates

지금까지는 A를 사용했지만 A대신 -A를 사용하면 위의 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 $\lambda_n$ 을 얻을 수 있다.

Arnoldi case에서 봤듯이 convergence는 extremal eigenvalues  $\lambda_1$  and  $\lambda_n$ 부터 시작하여 점차 안쪽에

있는 eigenvalue로 이동한다.







#### Convergence estimates

m개의 Chebyshev Point는 [-1,1] 범위에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

$$x_j = \cos \theta_j, \qquad \theta_j = \frac{(j - \frac{1}{2})\pi}{m}, \qquad 1 \le j \le m.$$

Chebyshev Point는 내부에서는  $O(m^{-1})$ ,  $\pm 1$  근처에서  $O(m^{-2})$ 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

- 이때 Convergence는 A 고유값 분포와 관련이 있다
- (1) A의 고유값이 Chebyshev Point보다 균일하게 위치하면 Lanczos Iteration으로 Outlier를 찾을 수 있다
- (2) A의 고유값이 (1)보다 더 균등하게 분포하면 Outlying Eigenvalue에 첫번째로 수렴한다
- (3) 고유값이 Uniform distribution이면 Outlier로 빠르게 수렴한다
- (4) A의 고유값이 오히려 Endpoint에 밀집되면 "Inliers"에 수렴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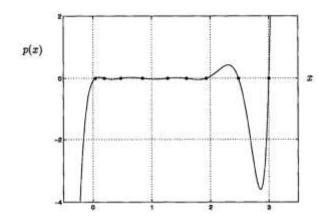


#### Convergence estimates

Ex) A: 203 X 203행렬

A = diag(0, .01, .02, ..., 1.99, 2, 2.5, 3.0)

A는 eigenvalue가 [0,2] 사이에 밀집되어 있고 2.5와 3.0의 두 개의 Outlier가 존재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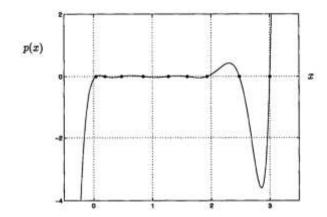
Lanczos Polynomial의 **Step 9**에서 Lanczos Eigenvalue Estimates는 7개 [0,2], 2개는 2.5과 3.0 근처에 존재한다이때 3개의 Leading Eigenvalue 1.93, 2.48, 2.999962로 존재한다 (Five-digit Accuracy)





#### Convergence estimates

Ex)



p(x) 그래프는  $x \approx 3$  근처에서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p(3) 값이 작게 된다면 3 근처에서 근을 가지게 된다 p(2.5) 값도 작게 된다면 2.5 근처에서 근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p(x)와 같은 그래프 개형이면 Outlier인 Eigenvalue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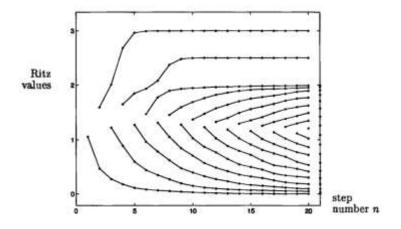
#### Convergence estimates

Ex)

Lanczos Polynomial의 **Step 20**에서 3개의 Leading Eigenvalues는

1.9906, 2.49999999987, 3.0000000000000로 존재한다 (Fifteen-digit Accuracy)

이때도 p(x) 그래프는 x는 2.5, 3.0 근처에서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해당 값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



n = 5에서 3.0, n = 10부터 2.5로 수렴해가는 과정이 보인다





# 5. Ghost Eigenvalues

#### Ghost eigenvalues

arnoldi에서 lanczos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 $q_k$ 를  $q_i$  ( i < k-1)에 orthogonal하게 project하지 않았다. 만약 roundoff error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그러나 roundoff error가 있으면 매우 작은 error가 점차 쌓이면서  $q_k$ 가  $q_1$ 에 orthogonal 하지 않게된다.

이로 인해 ghost eigenvalues 문제가 발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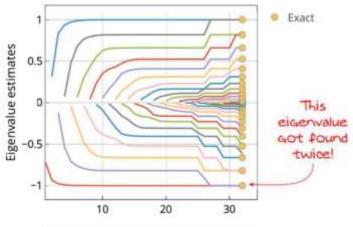
$$egin{aligned} Aq_k &= h_{1k}q_1 + ... + h_{kk}q_k + h_{k+1,k}q_{k+1} \ & r_k = Aq_k - h_{1k}q_1 - ... - h_{kk}q_k = h_{k+1,k}q_{k+1} \ & h_{k+1,k} = \|r_k\|, \ q_{k+1} = r_k/h_{k+1,k} \end{aligned}$$

$$egin{aligned} lpha_k &= q_k^T A q_k \ &r_k = A q_k - eta_{k-1} q_{k-1} - lpha_k q_k = eta_k q_{k+1} \ η_k = \|r_k\|_2 \ &q_{k+1} = r_k/eta_k \end{aligned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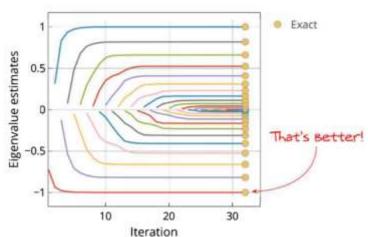




#### Ghost eigenvalues



첫번째 그림은 roudoff error로 인해서  $T_k$ 의 eigenvalue가 A의 똑같은 eigenvalue로 수렴하는 상황이다. 이로 인해 안쪽에 있는 eigenvalue를 놓치게 된다.



두번째 그림은 완전하게 re-orthogonalization을 해주어서 올바르게 수렴하는 상황이다. 완전하게 re-orthogonalization을 해주면 수렴은 잘되지만 연산량이 기존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. (iteration k에서의 연산량 = O(nk))





#### Ghost eigenvalues

하나의 eigenvalue가 정확하게 찾아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.

예를 들어  $\lambda_1$ 이  $\lambda_2$ 보다 많이 크고 수렴한다고 하자. 즉,  $T_k$ 의 top eigenvalue  $\mu_1^{(k)}$ 가  $\lambda_1$ 과 매우 가깝다.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.

$$\mu_1^{(k)} = \max_{y \in \mathcal{K}(A,q_1,k)} \frac{y^T A y}{\|y\|^2} \approx \max_{x \in \mathbb{R}^n} \frac{x^T A x}{\|x\|^2},$$

이때, top eigenvector  $x_1$ 는 krylov subspace  $\mathcal{K}(A,q_1,k)$ 에 존재한다.

그 후 iteration을 진행할 때,  $Aq_k$ 는  $span\{q_1,...,q_{k-2}\}=\mathcal{K}(A,q_1,k-2)$ 에 orthogonal 해야한 다.

이때, arnoldi에서 lanczos로 넘어오는 과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 $Aq_k$ 를  $\mathcal{K}(A,q_1,k-2)^\perp$ 에 project 하지 않는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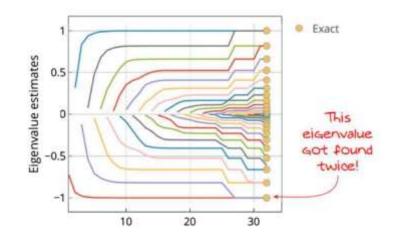
#### Ghost eigenvalues

roundoff error로 인해 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.

iteration을 하면서 A를 곱하는데 이때,  $x_1$ 의 방향의 작은 오차가 점점 누적되게 된다.

그로 인해,  $q_k$ 가 다시  $x_1$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  $\lambda_1$ 을 재발견 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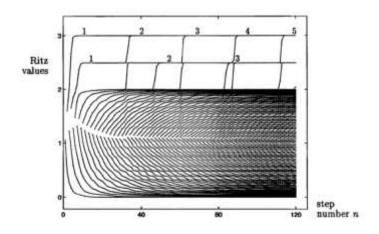
만약 다른 eigenvalue와 well-separated 되는 eigenvalue가 없다면 모든 eigenvalue가 비슷한 속도로 수렴하게 된다.(일찍 수렴하는 것이 없음) 그렇게 된다면 ghost eigenvalue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.







#### Ghost eigenvalues



Ghost Eigenvalue인 3.0과 2.5이 각각 4번, 2번 나타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직관적인 해석도 가능하다

- (1) A 고유값이 Point가 아닌 Small Interval이다
- p(z) 값을 작게 하기 위해서 Ghost Eigenvalue가 나타난다
- (2) A 고유값으로 수렴이 대응되는 고유벡터 성분을 소멸시킨다
- round error로 인해 그 성분이 다시 나타나며 iteration이 지날수록 그 성분을 없애기 위해 Ghost Eigenvalue가 나타난다





# END

### References

- [1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SIAM.
- [2] Trefethen, L. N., & Bau, D. (1997). Numerical linear algebra (1st ed.). SIAM.

#### **Figure**

- [1] Trefethen, L. N., & Bau, D. (1997). Numerical linear algebra (1st ed.). (p 247), SIAM.
- [2] Trefethen, L. N., & Bau, D. (1997). Numerical linear algebra (1st ed.). (p 251), SIAM.
- [3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14). SIAM.
- [4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15). SIAM.
- [5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18). SIAM.
- [6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16). SIAM.
- [7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19). SIAM.
- [8] Trefethen, L. N., & Bau , D. (1997). Numerical linear algebra (1st ed.). (p 245), SIAM.
- [9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20). SIAM.
- [10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24). SIAM.
- [11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18). SIAM.

- [12] Trefethen, L. N., & Bau, D. (1997). Numerical linear algebra (1st ed.). (p 263), SIAM.
- [13] Trefethen, L. N., & Bau, D. (1997). Numerical linear algebra (1st ed.). (p 264), SIAM.
- [14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16). SIAM.
- [15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25). SIAM.
- [16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27). SIAM.
- [17] Trefethen, L. N., & Bau, D. (1997). Numerical linear algebra (1st ed.). (p.280). SIAM.
- [18] Trefethen, L. N., & Bau, D. (1997). Numerical linear algebra (1st ed.). (p.281). SIAM.
- [19] Trefethen, L. N., & Bau, D. (1997). Numerical linear algebra (1st ed.). (p.282). SIAM.
- [20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29). SIAM.
- [21] Darve, E., & Wootters, M. (2021). Numerical Linear Algebra with Julia. (p.230). SIAM.